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교회 설립 32주년 감사주일

찬양예배 시 교회 설립 32주년 감사예배 및 16대 장로 임직예식

오늘은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 설립 32주년 감사예배 및 16대 장로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32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와 격려를 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 부탁드립니다.

12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12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12월 첫 번째 토요일인 12월 3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써 위로받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전도회 이웃 섬김

에스더전도회(회장:박미정 권사)는 지난 11월 15일(수) 정기총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 기증을 결의하고 22일(수) 후원금을 '더불어배움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더불어배움재단'은 공교육지원과 돌봄과 청소년케어, 문화지원으로 음악회사업, 자격증 취득, 은평교육복지센터 등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에스더전도회의 마음을 담은 후원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한 알의 밀이 되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2023년 "이웃·친구들과 함께하는 서울·비전나눔·음악회"

오늘 오전 10시 30분, 웨민홀

2023년 "이웃·친구들과 함께하는 서울·비전나눔·음악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웨민홀에서 열립니다.
 각각의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과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음악회이며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비전을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음악회입니다. 성도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초청공연팀 : 라 클라쎬(La Classe)
 "라 클라쎬"는 이탈리아로 '클래스가 높은', 프랑스어로는 '멋지다'란 뜻으로 멤버들은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외 오페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오페라 솔리스트들로 결성되었습니다.
- 교회 공연팀: 장윤식 안수집사 기타연주, 러브레터 중창팀 (이신원 성도, 최근우 집사, 한대석 안수집사, 오명걸 안수집사)

· 대상 : 전교인 및 교육부서



멕시코 재난 현지 교회 긴급 지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0월 멕시코 게레로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현지 교회 8곳에 긴급 원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우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허리케인 '오티스'는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성장하였고 지난 10월 24일(화), 25일(수) 멕시코 게레로 주 아카풀코가 직격탄을 맞아 많은 인명 피해와 가옥과 건물이 파손 되고 초목까지 큰 피해를 입어 멕시코 당국은 피해 복구 시간이 최



하였습니다. 현재 예배처소의 회복과 성도 가정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당회는 올해 바자 수익금 중 500만 원을 멕시코 현지 교회 회복기금으로 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회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현지 교회 15곳을 급히 방문하여 살펴보고 이중 피해 규모가 큰 8곳의 교회를 선별하여 원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예배처소의 회복과 성도 가정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당회는 올해 바자 수익금 중 500만 원을 멕시코 현지 교회 회복기금으로 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닌 일하는 공동체로!



손달익 위임목사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신학적 가르침을 잇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목사님을 돕고 협력하면서 서울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십자가를 함께 지고 헌신해 오신 많은 원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한때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재건과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복된 날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서울교회에 주신 설립시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더한층 헌신의 열정을 더해 주시기를 모든 서울 가족들에게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 16:13 이하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신 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순간입니다. 원래 이 말 ecclesia는 옛 그리스에서 주민총회를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이웃 도시와 전쟁이 생기거나 마을의 중요한 일을 논할 때 모인 주민총회 모임이었는데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ecclesia’,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여 의논하여 결정하고 흠어질 때는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맡아 흠어져 그 의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모임이 ecclesia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흠어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언급하실 때 그 말씀의 표현들 가운데 자기 가슴 속에 품었던 교회 모습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원형교회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 출발했고 그런 교회 모습을 구현함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마 16:18의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은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 교회가 소속하기도 주님이셔서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성별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 교회의 머리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교회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절대적 주권을 지니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우리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청지기들이요 종들일 뿐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심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기초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그 반석은 다름 아닌 베드로를 통해 고백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이며 이 고백의 근거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고 말씀을 반석 삼고 말씀의 가르침과 터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셋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능력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격변기가 왔을 때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생존 자체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약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는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생기가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어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날마다 기사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 단순히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닌 일하는 공동체(Not only Being but doing)의 모습을 세상 끝 날까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32살의 성숙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역사의 공과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의 정신으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지향점을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교회 모습,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말씀의 터전 위에 뿌리내린 교회, 음부의 세력을 극복하는 능력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전 교회적 역량과 기도를 모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함께 헌신해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다시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새 출발을 위해 모두 함께 전진해 주시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재삼 당부드립니다.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형열 장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설립 32주년! 제16대 서울교회 장로로 부름받은 백도환 안수집사의 장로 임직을 모든 이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고, 홀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달려온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시고 더욱 정진(精進)하십시오.

그동안 들어온 말씀들을 되새김해 봅시다.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종의 종이 되어 섬기라, 빛과 소금 되어라, 용서하라 등등... 말할 수 없이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 왔다고 여깁니다.

감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다면 <한 영혼이 귀함을 기억하자>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다수를 좋아하고, 쫓아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한 사람의 영혼에 기도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장로의 마음은 울고있는 <한 영혼>을 찾아 낼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포근하게 품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온 산과 골짜기를 다니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놓치지 맙시다. 돌아온 한 아들을 품으신 아버지처럼, 옥토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한 마디 말 속에 담겨진 소망의 말을 기억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따라 승리하는 귀한 장로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장로 임직을 받으며

섬기는 자, 때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백도환 안수집사

서울교회 16대 장로로 부족한 저를 임직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기와 여건까지도 생각하시고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노회교육과 당회교육을 통하여 기독교가 왜 고난의 종교인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 왔는지,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선배 장로님들도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였고, 결국은 부활과 천국으로 구원하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처음 맡은 장로의 직임에 혼자 피택되어 걱정이 앞서고 난감하였으나 사명을 맡겨 주실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잠 15:31)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셨고 그동안 면접과 면담을 통해 하셨던 경계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를 늘 기억하여 더 낮아지고 보다 민첩하게 준비하여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로의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 목사님을 도와 행정과 치리를 관장하고, 성도님들과 피차간에 권면하는 역할을 초심의 신양자세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셨고 그동안 면접과 면담을 통해 하셨던 경계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를 늘 기억하여 더 낮아지고 보다 민첩하게 준비하여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소서
-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 목사님과 성도님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들게 하소서
-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 가정과 개인사업에도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번영하고 창대하여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 성경암송대회를 마치며

성경암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수빈 (유년부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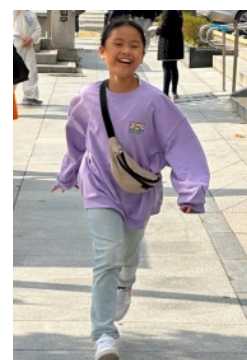
저는 올해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처음에 20절을 외우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해보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그냥 예전에 암송할 때 하던 것처럼 걸어 다니며 매일매일 꾸준히 외웠습니다. 가끔은 화도 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신기하게 잘 외워졌고, 3주 만에 다 외

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암송대회가 끝난 뒤에는 신기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외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암송을 하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성경암송대회 날 친구들과 놀이하는 시간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도 성경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외운 성경으로 많은 사람

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서울교회 화이팅!!!!



유년부 노방전도 후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는 오수빈 어린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이민호 장로
(6교구)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수 없이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호등 앞에서 이번 신호에 건너가야 할까? 다음 신호에 여유 있게 건너갈까? 같은 일상의 반복적 판단부터,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정할 것인가? 라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고성능 최신 기계장치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다 알지 못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숙지하면 그 기계장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나침판인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기준일 것입니다.

매번 사용설명서를 읽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하기보다, 주요 기능과 방법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사용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

릴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 삶에 되새기는 시간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암송하는 분들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빠져 평안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암송대회에 적은 부분을 부족한 모습으로 참여했지만, 잠언의 말씀으로 삶의 튼튼한 나침판을 되새기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미송 권사
(3교구)

몇 해 전, 삶 중에 무력감에 빠져 새 힘을 간구하고 있을 즈음에, 성경암송대장 김미성 권사의 권면에 힘입어 ‘잠언’의 암송을 작심하고 성경을 펼쳤다. 하지만 긴 세월 방치되어 온 나의 암기력은 말씀을 되풀이 통독하나 다시 기억해내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이어졌다.

달리 방법이 없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하신 말씀에 오로지 의지하여 안방에, 주방에, 화

장실에 말씀 인쇄지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생활 틈틈이 짧게 외운 말씀들을 반복, 또 반복해서 묵상하는 시간에 집중했다.

그렇게 긴 시간 내 안에 더디게 또박또박 말씀들이 쌓여가더니 신기하고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은 나의 기도 외우고 또 외워 내 영혼에 새겨진 바로 그 말씀들로 화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전하는 경고를 성경 구절로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제 매일 잠들기 전 한 시간 성경을 외고 묵상하는 시간은 내게 일상의 루틴이 되었고 하루도 거를 수 없는 가장 기다려지는 은밀하고 행복한 시간

이다. 그 중에 성경암송대회에서 대상 주시니 내게 큰 영광과 기쁨이요, 성경암송으로 어디서나 무시로 눈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묵상할 수 있음은 가장 큰 즐거움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갈수록 기쁨은 더 커져가고, 묵상은 더 깊어지고, 기도도 그만큼 더 길어진다. 감사, 감사 또 감사하다.

주님,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공들여 외운 말씀들 세월이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삶의 지혜 주시기를, 새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 따라 바르게 살게 하소서. 또한, 더 많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성경암송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부담의 숙제는 남아있을지라도...



박혜정 권사
(에스더전도회 서기)

저는 지난해 에스더 전도회에서 성경암송대회에 출전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2023 성경암송대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잠언 1장 분량을 2명이 나눠서 암송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었습니다. 또 암송 후에는 힘들었던 기억보다 은혜가 컸음을 경험하였기에 올해 성경암송대회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범위는 잠언 10장으로 32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10월 1일(주일)부터 하루 1절씩 암송을 하고, 11월에는 10장 전체를 반복하면 부담 없이 암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

고 10월 1일(주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암송 후 그 다음날이 되면 전날 암송했던 구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 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매일 암송을 해야 하는데 말씀 암송의 우선순위를 다른 일정보다 미루다보니 10월 28일(토) 전도회 회원들과 1차 점검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겨우 20절까지 더듬더듬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라는 말씀처럼 제가 암송의 게으름을 피웠더니 당초 계획했던 10월 말까지 10장 전체 암송을 못하는 ‘말씀 암송의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암송 시간을 늘리며 사명자 대회 기도 시간에도 말씀 암송을 하여 암송을 마치게 되었고 전도회 회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는 구절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입이 미련한 자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인 제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아 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더 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인 성경암송대회 범위가 잠언 말씀이기에 더 행복했으며, 암송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사진 : 오명걸 안수집사
정승균 안수집사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2023년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지난주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2부, 3부를 추수감사절 절기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사진:유태서 안수집사
예상영 선생

결혼



- 9교구 송연재 성도·조성호 성도
(송인수 안수집사·고 박한옥 집사 장녀)
12월 2일(토) 2시 30분 그랜드힐 컨벤션 2층
사브리나홀

취임



- 1교구 정철용 집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부학장 취임

수상



- 호산나대학 공연프로젝트 팀의 '시선, 그때 우리는'이 제9회 광주시민연극제 작품상과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식사·떡 제공

- 2교구 이순례 권사, 김정훈 안수집사·김희정 권사 가정, 김진훈 집사·윤은정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 주일 | 자원자 (오후 1시-2시) | 수 | 전도회 (오후 1시-2시) | 토 | 선교회 (오후 1시-2시) |
|-------|-------------------|-------|-------------------|-------|-------------------|
| 10.29 | 자원자 | 11.1 | 도르가, 루디아, 뵤뵤 | 11.4 | 빌립, 안드레, 베드로 |
| 11.5 | 자원자, 마리아 | 11.8 | 한나 | 11.11 | 바울, 엘리야 |
| 11.12 | 자원자 | 11.15 | 에스더 | 11.18 | 모세 |
| 11.19 | 자원자 | 11.22 | 리브가 | 11.25 | 이삭 |
| 11.26 | 자원자 | 11.29 | 권사회 | | |

전교인 성경읽기표

| 교구(부서): | | | | 이름: | | | |
|---------|----|----------|----|--------|----|--------------|----|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일 자 | 요일 | 1년2독 | 확인 |
| 11월27일 | 월 | 고전 13-16 | | 11월27일 | 월 | 요 5:1-7:39 | |
| 11월28일 | 화 | 고후 1-3 | | 11월28일 | 화 | 요 7:40-11:57 | |
| 11월29일 | 수 | 고후 4-8 | | 11월29일 | 수 | 요 12-16 | |
| 11월30일 | 목 | 고후 9-13 | | 11월30일 | 목 | 요 17-21 | |
| 12월1일 | 금 | 갈 1-3 | | 12월1일 | 금 | 행 1-5 | |
| 12월2일 | 토 | 갈 4-6 | | 12월2일 | 토 | 행 6-9 | |
| 12월3일 | 주일 | 엡 1-4 | | 12월3일 | 주일 | 행 10-13 |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를 통해 확인하게 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소서.
2. 지난 32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새 포도주를 잘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의 치유와 전인적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 |
|---------------------------------|--|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 전도사 박미라 | |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일 예배 | 1부 예배 | 오전 9시 |
| | 2부 예배 | 오전 11시 |
| | 3부 청년예배 | 오후 2시 |
| | 찬양 예배 | 오후 4시 30분 |
| 수요 예배 | 1부 예배 | 오전 11시 |
| | 2부 예배 | 오후 7시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30분 | 웨스트minster홀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영아부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403호 |
| 유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6호 |
| 유치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2호 |
| 유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1호 |
| 초등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601호 |
| 중등부 | 오전 9시 - 10시 30분 | 501호 |
| 고등부 | 오전 9시 - 10시 20분 | 101호 |
| 청년부 | 오후 3시 30분 - 5시 | 601호 |
| 신혼가정부 | 오후 12시 30분 - 2시 | 606호 |
| 사랑부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603호 |
| 영어성경부 | 오전 10시 15분 - 11시 | 802호 |
| 소망부 | 오전 10시 10분 - 11시 | 102호 |
| 신앙강좌부 |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 802호 |
| 새가족부 |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 602호 |
| 세례교육부 |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